

도깨비기와

슈리성 정전에 설치된 도깨비기와는 고해상도로 복원한 가마쿠라의 옛 사진을 바탕으로 아흠의 형태를 점토 모형으로 제작한 뒤, 감수자의 확인을 거쳐 새로운 형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.

- 슈리성 정전 지붕에 설치된 4장의 도깨비기와
- 레이와 시대의 복원에서는 다이쇼 11년(1922년)에 촬영된 가마쿠라의 고해상도 옛 사진을 바탕으로 아흠의 형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

석고 원형

점토 모형으로 확정된 형상을 석고 원형에 본뜨고 이를 바탕으로 기와를 소성합니다.

- 석고 모형 단계에서 세 차례의 감수를 거친 후에 석고 원형을 제작했습니다
- 소성 후에 발생하는 수축을 고려해 처음부터 실제의 110% 크기로 만들었습니다

손으로 빚는 성형(내부 가공 및 건조)

제작된 석고 원형을 바탕으로 장인이 직접 손으로 빚어 기와를 성형합니다. 기와의 원료인 도토에는 우루마시에서 생산된 “이시카와 백토”를 사용했습니다. 크기는 이전보다 약 1.1배 커졌는데, 이는 헤이세이 복원 당시 가마 소성 단계에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번 복원에서는 사자의 얼굴을 상하로 분할해 성형하고 도토의 배합을 조정하는 식으로 개선했습니다.

- 석고 원형을 바탕으로 장인이 손으로 직접 빚어 성형합니다
- 레이와 시대의 복원에서는 우루마시산 ‘이시카와 백토’를 활용하여 도토를 개발했습니다
- 레이와 시대의 복원에서는 헤이세이 복원 당시보다 약 1.1배 큰 크기로 제작하기 위해 도토의 배합과 성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

초벌소성(가마 재이기 및 꺼내기)

성형을 마친 후에는 기와를 초벌로 소성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유약을 바른 뒤, 가마에서 두 번째 소성을 진행합니다.

도깨비기와

유약 바르기

유약은 전통적인 녹색과 옅색을 사용했습니다. 요철이 있는 입체 형상에 여러가지 색을 효과적으로 입히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배합 방식과 순서, 소성 방법을 검토하며 진행했습니다.

- 도깨비기와의 유약은 전통적인 '녹색'과 '옅색'을 사용했습니다
- 요철이 있는 입체 형상에 여러가지 색을 효과적으로 입히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배합 방식과 순서, 소성 방법을 검토하여 제작했습니다

소성

유약을 바르고 두 번째 소성 작업을 시작합니다. 이번 복원에서는 기와의 크기가 크고 상하로 분할된 구조인 데다 여러가지 유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을 비롯해 유약을 바르는 순서부터 마스킹, 온도 관리까지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.

- 유약을 바르고 두 번째 소성 작업을 시작합니다
- 이번 복원에서는 사자의 얼굴이 크고 상하로 분할된 구조인 데다 여러가지 유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을 비롯해 유약을 바르는 순서부터 마스킹, 온도 관리까지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